
 기획재정부		보도자료	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 
보도일시	배포시	배포일시	2018. 4.20.(금) 22:30	
담당과장	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 김명규 (044-215-2750)	담당자	최정빈 사무관 (044-215-2752) 99jbchoi@korea.kr	
	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장 박종원 (044-203-4320)		임채욱 서기관 (044-203-4327) chaeugi@korea.kr	
	고용노동부 노사관계지원과장 임동희 (044-202-7620)		박상원 사무관 (044-202-7621) ekfrlwoa@korea.kr	
	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장 성낙영 (042-481-1695)		이범선 사무관 (042-481-1609) leebs1967@korea.kr	
	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장 김성조 (02-2100-2920)		김선욱 사무관 (02-2100-2922) hjkksu@korea.kr	
	산업은행 투자관리실장 진인식 (02-787-5851)		임준석 팀장 (02-787-5855) scaramus@kdb.co.kr	
	금융감독원 신용감독1팀장 홍석린 (02-3145-8390)		장영심 수석조사역 (02-3145-8388) yszzang@fss.or.kr	

- 경제현안간담회 회의 결과 -

□ 정부는 4.20(금) 20:30(워싱턴 현지시간 4.20(금) 07:30)

「경제현안간담회(주재 : 경제부총리)」를 개최하였음

* 참석자: (워싱턴)경제부총리, 산업부장관, (서울)노동부장관, 중기부장관, 금융위원장, 청와대 경제수석, 산업은행 회장,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

○ 경제부총리가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·WB 총회 참석차 워싱턴 해외출장중이고 산업부 장관도 미국출장중인 점을 고려하여, 워싱턴과 서울에서 컨퍼런스콜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음

○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GM 임단협 진행상황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음

□ 한국GM 임단협 합의 지연과 관련, 정부는 한국GM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노사가 신속하고 진정성있는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합의를 이뤄내기를 촉구함

- 노사가 합의에 실패한다면, 한국GM근로자 14,000여명, 협력업체 종사자 약 14만명 등 약 15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게 되고,
 - 한국GM공장과 협력업체가 위치한 지역경제의 어려움도 가중될 것임
- 사측은 중장기적인 투자(Long-term commitment) 계획을 제시하고 노조를 설득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하고,
 - 노조 또한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음

□ 정부와 산은은 노사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기존에 발표한 3대원칙*하에서 GM측과 최대한 신속하게 실사를 진행하고 경영정상화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임

- * ①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
 ② 주주·채권자·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
 ③ 장기적으로 생존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

- 만약,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, 정부로서는 원칙적 대응이 불가피함
- 한편, 정부는 협력업체의 경영애로가 최소화되도록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하고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, 정책자금 지원 등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



기획재정부 대변인

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@korea.kr

